

8 종교개혁에 대한 사돌레토와 칼뱅의 논쟁

박경수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추기경 야코포 사돌레토(Jacopo Sadoletto)와 종교개혁자 장 칼뱅(Jean Calvin) 사이의 논쟁을 검토해야만 한다.¹⁾ 사돌레토의 편지와 그에 대한 칼뱅의 답변은 “종교개혁 시기에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이루어졌던 의견교환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 하나”이며, “16세기 종교논쟁에 대한 뛰어난 서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²⁾ 따라서 본 논문은 사돌레토와 칼뱅 사이에 있었던 종교개혁 논쟁의 역사적 배경, 내용,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봄으

1. 사돌레토의 편지는 Henry Beveridge가 편집하고 번역한 *Tracts and Treatises on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Vol. 1, 1-22를 참조하였고, 칼뱅의 답변은 J. K. S. Reid가 번역한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London : SCM Press, 1954), 221-256을 참조하였다. 칼뱅의 답변의 경우 Beveridge의 번역보다 Reid의 번역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분명하기 때문이다.
2. Jacopo Sadoletto and John Calvin, *A Reformation Debate : Sadoletto's Letter to the Genevans and Calvin's Reply*, ed., John C. Oli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6), 7.

로써,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 진영의 논리가 무엇이고 각각 어떤 점들을 강조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1. 논쟁의 역사적 배경³⁾

사들레토의 편지나 칼뱅의 답변은 모두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갈등의 외증에서 씌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논쟁은 16세기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에야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제네바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16세기의 정치상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두메르그(Emile Doumergue)가 지적한 것처럼, “제네바 종교개혁의 특징은 종교개혁이 정치적 해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⁴⁾ 이런 의미에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정치혁명의 연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의 제네바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교의 통치권 아래 있는 도시였고, 정치적 관점에서는 사보이 공작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제네바의 주교는 오랫동안 사보이 궁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주교와 사보이 가문의 동맹체제에 대한 반란으로”⁵⁾ 간주될 수 있었다. 1526년 일단의 제네바 애국자들이 사보이의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베른과의 동맹에 찬성

3. 이 시기의 제네바 역사를 위해서는 Robert Kingdon, “Was the Protestant Reformation a Revolution? The Case of Geneva,” *Transition and Revolution*, ed. Robert Kingdon (Minneapolis,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4), 53-76을 참고하라. 또한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제9장 그리고 David C. Steinmetz, “Luther and Calvin on Church and Tradition,” *Calvin's Ecclesiology: Sacraments and Deacons*, ed. Richard Gambl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9), 2-15도 보라.

4. Jacopo Sadoletto and John Calvin, *A Reformation Debate*, 13.

5. Robert Kingdon, “Was the Protestant Reformation a Revolution? The Case of Geneva,” 64.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베른은 제네바 종교개혁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특히 베른이 1528년 츠빙글리의 개혁을 채택한 것은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침내 1536년 5월 21일 주일날 제네바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우상숭배를 버릴 것을 맹세하였다.⁶⁾ 이로써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혁명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칼뱅이 제네바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다.

비록 제네바가 자신의 새로운 신앙으로 프로테스탄트 사상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이 제네바 토양에 뿌리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제네바 개혁자로서의 칼뱅의 생애가 항상 평온무사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1537년 1월 칼뱅은 교회치리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여 제네바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였고, 제네바의 개혁교회를 위한 요리문답과 신앙고백서도 출판하였다. 그러나 칼뱅이 시행하고자 한 엄격한 치리에 대한 반발이 곧바로 나타났다. 1537년 11월 제네바 총회는 신앙고백서를 실행에 옮기기를 거부했고, 200인 의회도 칼뱅과 파렐은 불순종하는 신자들을 파문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더욱이 1538년 선거에서 뽑힌 제네바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불확실한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베른에 더욱 의존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목회자들과 상의도 없이 제네바에 베른식의 예식들을 급하게 채택하였다. 특히 베른은 세례반(洗禮盤)의 사용을 고집하고, 성만찬에서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의 사용을 주장했는데, 1538년 3월에 200인 의회는 칼뱅과 파렐에게 이 같은 베른의 예식들을 따르라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칼뱅과 파렐은 베른의 형식을 따르기를 거부하였다. 그것은 비록 베른의 예식들이 꼭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그리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들도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된 신생교회인 제네바 교회의 자

6.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135.

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1538년 4월 22일 200인 의회는 칼뱅과 파렐을 면직하고 3일 안에 제네바를 떠날 것을 명하였다.

칼뱅과 파렐의 추방은 제네바를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갔고, 제네바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켰다. 제네바의 저명인사 아미 페랭(Ami Perrin)의 주도로 결성된 기욤파(Guillermis : 기욤 파렐의 이름에서 나온 별칭이다.)는 칼뱅과 파렐 자리에 대신 임명된 새로운 목회자들을 거부하였다. 신생 제네바 교회는 동요하였고 분열의 위기에 처하였다. 어떤 이들은 제네바가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제네바에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네바 교회의 위기는 그들로 하여금 제네바가 옛 신앙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1539년 3월 18일 추기경 사들레토가 제네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로마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하였다. 테오도르 베즈(Theodore Beza)는 이에 대해 사들레토가 “제네바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제네바가 훌륭한 목회자들을 빼앗겼을 때 이웃이라는 미명 아래 양떼를 쉽게 유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서”⁷⁾ 편지를 보냈다고 평하였다. 맥닐(John McNeill)은 사들레토의 편지를 “프로테스탄트 영토의 탈환을 노리는 반동 종교개혁의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도전”⁸⁾으로 간주한다.

사들레토의 편지를 받은 제네바 권력자들은 제네바와 베른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들레토의 편지 사본을 베른으로 보냈다. 몇 달에 걸쳐 서로 협의한 후에 두 도시의 의회는 1539년 7월 말경에 칼뱅에게 답장을 써 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칼뱅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베른 의회는 시몬 솔츠

(Simon Sulzer)를 슈트라스부르크로 보내 제네바와 베른에 대한 묵은 유감을 청산하고 사들레토의 편지에 대한 답을 써 달라고 간청하였다. 얼마간 망설이다가 칼뱅은 펜을 들어 6일 만에 사들레토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썼다. 이 답변은 1539년 9월 1일자로 되어 있다. 칼뱅의 답변은 사들레토의 편지와 함께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리헬(Wendelin Rihel)에 의해 출판되었다.

2. 논쟁의 내용

사들레토의 편지와 칼뱅의 답변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사이의 모든 중요한 논쟁적 주제들과 만나게 된다. 칼뱅이 로마 가톨릭을 이탈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어떻게 정당화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두 사람의 차이점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교회나 성서나

사들레토와 칼뱅 사이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교회와 성서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사들레토의 편지는 본질적으로 고대 교회를 변호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고대 교회의 권위를 뒤엎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고대 교회의 신앙을 변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들레토의 주장은 로마 가톨릭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성령께서 로마 교회를 항상 인도하시고 로마 교회의 교리와 공의회를 이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들레토의 편지는 불순종에 반대하여 권위를, 혁신에 반대하여 교리적 전통을 옹호하였다. 사들레토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혁신을 도입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사들레토는 “나는 고레로부터 잘 확립된 것들을 혁신하려는 그런 자들,

7. *Tracts and Treatises*, 1, 1.

8. John T.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154.

그와 같은 혼란, 분쟁들이 단지 사람들의 영혼에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모든 악 중에서 가장 커다란 악입니다.) 사적이고 공적인 일에서도 또한 유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⁹⁾라고 말하였다. 그는 분명한 용어로 핵심적인 질문을 제시한다.

들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더 적합한 것인지, 전체 교회와 잘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법령들과 성례들을 신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쟁과 새로운 것을 찾는 자들에게 동조하는지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곳이야말로 길이 두 방향으로 갈라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길입니다.¹⁰⁾

사들레토는 로마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길을 비교하면서 전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만 후자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1,500년의 전통을 지닌 로마 교회의 품이 겨우 30여 년 전에 나타난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오만한 허구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¹¹⁾ 사들레토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순종으로 거룩한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들레토에게 있어서 거룩한 교회는 바로 로마 교회를 말한다. 그에게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거룩한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시함으로써 “모든 교회법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의 자유를,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면허장을 얻으려고 애쓰는”¹²⁾ 자들처럼 보였다. 사들레토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9. *Tracts and Treatises*, 1, 5.

10. *Tracts and Treatises*, 1, 15-16.

11. *Tracts and Treatises*, 1, 14.

12. *Tracts and Treatises*, 1, 15.

바로 고대 교회와 로마 가톨릭 전통 사이의 연속성이었다.

칼뱅은 자신의 답변에서 로마 교회가 흠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고대 교회에 충실하다는 사들레토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칼뱅은 또한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1,500년 동안 동의해 온 것을 혼란에 빠트리는 혁신자들과는 생각도 거부하였다. 그는 오히려 로마 교회가 끔찍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고대 교회에서 이탈하였다고 믿었다.

나는 우리가 당신보다 훨씬 고대의 유산들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도가 고대 교회의 모습을 갱신하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면서도 간교하고 교묘하게 숨겼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고대 교회의 모습은 먼저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훼손되고 왜곡되더니 이후에는 로마 교황과 그 도당들에 의해 극악무도하게 난도질당해 거의 파괴되어 버렸습니다.¹³⁾

칼뱅에 따르면 중세 로마 교회 하에서 교회의 모든 기초들, 즉 교리, 성례, 치리, 예식 등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에 의해 손상된 고대 교회의 유산을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 칼뱅은 “모든 점들에서 고대 교회는 확실히 우리 편이고, 우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¹⁴⁾라고 주장하였다. 로마 교회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뿐만 아니라 거룩한 교부들의 도움으로도 무장되어”¹⁵⁾ 있었다. 페이튼(James Payton)이 지적한 것처럼 칼뱅은 그의 답변에서 여러 차례 고대교부들을 인용했지만 사들레토는 단 한 차례도 교부들을 인용하지

13.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31.

14.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40.

15.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40.

않았다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¹⁶⁾ 칼뱅에 의하면 개혁자들이 아니라 교황주의자들이 고대 교회의 전통에 새로운 것을 도입한 장본인들이다.

칼뱅이 고대교부들과 공의회가 프로테스탄트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성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교부들이나 공의회가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권위이다. 칼뱅은 자신의 답변에서 교회전통이 성서에 종속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 영역 너머에 있고, 교부들과 공의회들은 말씀의 규범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의회들과 교부들에게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들이 지니기에 적합한 지위와 영광을 돌립니다.¹⁷⁾

고대교부들의 진술과 공의회들의 결정은 성서와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권위를 지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권위도 없는 것이다. 칼뱅은 언제나 전통에 대한 성서의 우월성을 주장하였다.

사돌레토는 겸손과 순종의 덕목을 강조했지만, 칼뱅에게 있어서 참된 겸손과 순종은 로마 교회가 규정해 놓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사돌레토는 사도적 계승의 교리를 강조했다.

16. James R. Payton, Jr., "History as Rhetorical Weapon: Christian Humanism in Calvin's Reply to Sadoleto, 1539," *In Honor of John Calvin*, ed. E. J. Furcha (McGill University, 1987): 96-132. 그리고 Anthony N. S. Lane, *John Calvin: Student of the Church Father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9)와 Irena Backus, "Calvin and the Greek Fathers," *Continuity and Change*, eds., Robert J. Ast and Andrew C. Gow (Leiden: Brill, 2000)을 참고하라.

17.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255.

만, 칼뱅은 교황주의자들에게 사도들의 계승자라는 직함을 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교황주의자들은 참된 신앙과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사도적 계승은 "근본적으로 신앙과 진리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면 허울 뿐인 자랑"¹⁸⁾에 불과하다. 칼뱅에게는 신앙과 진리의 계승이 단순한 사도적 계승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다. 사돌레토와 칼뱅의 논쟁에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성서인지 하는 문제는 중요한 주제였다.¹⁹⁾ 사돌레토가 거룩한 교회의 권위를 강조한 반면에 칼뱅은 성서가 궁극적인 권위라고 주장하였다.

2) 성령과 말씀

두 사람 사이의 또다른 중요한 논쟁점은 그들이 교회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돌레토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모든 부분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되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에, 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불일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부분들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호흡하기 때문입니다.²⁰⁾

18. Paul D. L. Avis,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129.

19. George H. Tavard, *Holy Writ or Holy Church*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59)에서 중세 말기와 종교개혁 시기 동안의 신학과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탐구한다. 칼뱅을 다루는 7장과 사돌레토를 언급한 154-156쪽을 참고하라. Tavard의 책에 대한 훌륭한 비평적 논문인 Robert McAfee Brown, "'Tradition' as a Problem for Protestants,"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XVI, No. 2 (January 1961), 197-221도 유의하다.

20. *Tracts and Treatises*, 1, 14.

칼뱅은 이런 사둘레토의 정의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교회에 대한 당신 자신의 정의보다 더 정확한 정의를 받아들일 자체가 되었다면, 이후에는 교회란 모든 성도들의 모임, 즉 온 세상에 편만한,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성도들이 하나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한 성령으로 함께 묶여져서 신앙의 일치와 형제애적인 조화를 증진시키고 지키는 모임이라고 말하십시오.²¹⁾

사둘레토가 성령의 인도를 강조했다면,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교리와 성령을 함께 강조하였다. 칼뱅에 의하면 교회는 신앙을 일으키는 거룩한 교리와 사랑을 고무시키는 성령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둘레토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 성령만 언급할 뿐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성령도 말씀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심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칼뱅은 사둘레토가 “성령은 교회에 앞서 가면서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추고, 다른 한편으로 말씀은 시금석(Lydian Stone)과 같아서 교회가 그것으로써 모든 교리들을 판가름한다는 것을”²²⁾ 깨닫지 못하고서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켰다고 비판하였다. 칼뱅에게 교회의 토대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였으며, 따라서 말씀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진정성을 결정짓는 기준이었다. 가톨릭 학자인 알렉산더 가녹지(Alexandre Ganoczy)조차도 “사둘레토가 제시한 교회에 대한 정의는 불완전하다.”²³⁾고 평가하고 있다.

21.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31.

22.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30-231.

23. Alexandre Ganoczy, *The Young Calvin*(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7), 279.

칼뱅이 볼 때 교황주의자들과 재세례파의 공통된 오류가 바로 성령과 말씀을 분리시키는 것이었다.²⁴⁾ 그들이 성령을 사랑할 때, 필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칼뱅은 말씀이 없는 성령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 “말씀은 없이 성령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가 실로 성령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통치가 모호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말씀과 한데 묶으신 것입니다.”²⁵⁾ 만일 교회가 말씀은 없이 성령에 의해서만 인도된다면 그것은 분파나 카리스마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칼뱅은 선지자들, 사도들, 교부들이 모두 교회에서 말씀에 첫 자리를 부여했다고 주장하였다.

3) 사랑과 믿음

칭의 교리가 종교개혁 논쟁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사둘레토와 칼뱅 사이에서 이 교리의 이해에 대한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칼뱅은 사둘레토에 대한 답변에서 칭의 교리를 “우리 논쟁에서 가장 주요하고 민감한 주제”²⁶⁾라고 말하고 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칭의 교리를 ‘종교의 성패가 달려 있는 중심 요체’²⁷⁾이며, ‘가장 중요한 전환점’²⁸⁾이라고 언급하였다. 칼뱅은 자신의 답변에서 많은 교리적 주제들을 강조했지만, 칭의 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주제이다.

사둘레토는 자신의 편지에서 칭의에 관한 프로테스탄트 교리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사둘레토가 볼 때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사랑에서 우러나는 도덕적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것

24.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30.

25.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29.

26.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34.

27. *Institutes*, III, 11, 1.

28. *Institutes*, III, 15, 1.

을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사돌레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내가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말할 때, 나는 새로운 것을 고안해 내는 그런 자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가벼운 경신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자비와 책임을 배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 믿음은 그 의미하는 바가 아주 풍부한 용어로서, 신뢰와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소망과 열망, 그리고 모든 미덕 가운데 첫째로 꼽히는 사랑까지 포괄합니다. ……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믿음 안에 사랑이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²⁹⁾

사돌레토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확신’ 이 상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하려는 인간의 바람과 의도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믿음이 사랑의 행위를 배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못하다. 사돌레토는 사랑의 덕이 ‘모든 미덕 가운데 첫째로 꼽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적인 의미에서의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위해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랑의 행위에 대한 사돌레토의 지나친 강조에 대해서는 그의 동료들조차도 반대를 표하였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협동을 강조한 사돌레토에 반대하여 추기경 콘타리니(Gasparo Contarini)는 칭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리처드 더글러스(Richard Douglas)에 따르면 “이런 불화는 콘타리니를 사돌레토보다 칼뱅과 가깝도록 만들었다.”³⁰⁾ 칭의론을 둘러싼 논쟁과 관

29. *Tracts and Treatises*, 1, 9-10.

30. Richard M. Douglas, *Jacopo Sadoleto 1477-1547: Humanist and*

련하여 콘타리니가 가장 뚜렷하게 등장한 것은 레겐스부르크 회담(1541)에서였다. 그곳에서 그는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화해를 소망하면서 칭의 과정에서의 믿음과 성화 과정에서의 사랑을 함께 강조하는 이중칭의(double justification) 교리를 옹호한 바 있다. 물론 사돌레토는 이런 이중칭의 개념을 강하게 거부하였다.

반면 칼뱅은 파렐에게 보낸 1541년 5월 11일자 편지에서 「레겐스부르크 문서」에서 칭의를 다룬 다섯 번째 조항에 대한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칭의를 둘러싼 논쟁이 매우 격렬하였습니다. …… 당신이 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발췌된 사본을 읽어 보시면 우리의 대적들이 크게 양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참된 교리의 본질을 유지하였고, 따라서 이 문서 안에 우리의 저작들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우리가 상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당신은 인정할 것입니다.³¹⁾

칼뱅은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의 우선성을 강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도 않았다. 칼뱅은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답변에서 “만일 당신이 신앙과 행위가 어느 정도로 분리될 수 없는지를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0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³²⁾ 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독교 강요」에서도 선행을

Reformer(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146. 사돌레토와 콘타리니 사이의 논쟁을 자세히 알기 원한다면 이 책의 80-93쪽과 145-162쪽을 참조하라.

31.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ed. Jules Bonnet (New York: Burt Franklin, 1972), Vol. 1, 260.

32.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236.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부르심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선택을 받았음을 알게 해 주는 표지’³³⁾라고 말하고 있다. 칼뱅은 분명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의로워진 자의 선행의 가치를 주장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선행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선행의 지위였다. 칼뱅에게 있어서 선행은 로마 가톨릭적인 의미의 공덕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였다. 칼뱅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공덕이나 선행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우리는 선행이 칭의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만,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서는 선행이 충분한 권위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런 선행의 공로 없이 값없이 단번에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값없이 주시는 칭의에 인간의 구원이 달려 있음을 끊임없이 주장합니다.³⁴⁾

선행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데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칼뱅의 확신이었다. 그는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로마 교회가 사랑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칼뱅은 “당신이 우리 구원의 가장 우선되고 주요한 동기가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읽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³⁵⁾라고 말하였다. 칼뱅에 의하면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이었다. 성서는 사랑이 구원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에 달려 있다고 가르친다. 올바른 순서는 먼저 믿음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33. *Institutes*, III, 14, 19-20.

34.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235-236.

35.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236-237.

로 의롭게 되고, 그 후에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좋은 나무는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롭게 된 자는 선행을 낳게 되는 것이다. 참된 믿음은 소망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낳는 것이다.

4) 누가 분리주의자인가?

논쟁에서 사들레토가 칼뱅에게 가한 가장 중대한 비난은 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려 했다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것은 참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분열의 죄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들레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갈기갈기 찢으려 했다는 것, 이교도 병사들도 나누어 가지기를 꺼리던 주님의 옷을 나누려 했을 뿐만 아니라 쥐어 뜯으려 했다는 것은 어떻게 용인될 것입니까?”³⁶⁾라고 물었다. 사들레토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진리는 항상 하나인 반면, 허위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곧은 것은 단순하고, 굽은 것은 많은 성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³⁷⁾라고 말한다. 사들레토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는 참되고 곧은 길이며, 프리테스탄트 교회들의 가르침은 거짓되고 굽은 길이었다. 사들레토가 볼 때 로마 교회는 언제나 교회의 일치를 지키려고 노력해 온 반면 개혁자들은 일치를 깨려고 하였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교회의 일치를 교란하는 분파적 행동이었으며, 개혁자들은 분리주의자들에 불과하였다.

칼뱅은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로마 교회에서 분리된 것을 정당화하였다. 칼뱅에 따르면 로마 교회의 수많은 기만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으며, 세례와 성찬의 참된 의미도 훼손되었다. 이것은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가 뒤틀려졌음을 의미한다. 칼뱅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36. *Tracts and Treatises*, 1, 19.

37. *Tracts and Treatises*, 1, 19.

이 필연성이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파문했으며, 그리스도의 덕이 깊은 망각의 늪에 빠졌으며, 목회자의 직무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신앙이 너무 만연해져서 거의 모든 종교적인 교리가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되었고, 모든 의식들이 오류에 빠졌으며, 거룩한 예배가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마신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³⁸⁾

이런 상황 하에서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비록 로마 교회 안에도 아직 교회의 어떤 미세한 흔적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로마 교회는 더 이상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라는 교회의 두 표지가 완전히 훼손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분리는 필요했고 불가피했다.

사들레토가 진리는 하나이고 오류는 하나됨을 교란시킨다고 말한 것은 옳은 지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분파를 조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서의 참된 가르침을 회복함으로써 원래의 순수한 고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복음주의적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로마 교회로 인해 타락한 교리, 성례, 치리, 예식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칼뱅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분리가 아니라 개혁이었으며,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칼뱅은 분명 자신의 사역이 참된 교회 회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³⁹⁾

칼뱅은 교회일치의 중요성을 고백하였다. 분리는 사들레토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칼뱅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칼뱅의 다음과 같은 신앙고백은 그가 그리스도에 근거한 참된 일치를 얼마나 열망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38.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41.

39.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51-252.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지 결정할 이는 오 주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저는 항상 말과 행동을 통해 제가 일치를 얼마나 갈구하는지를 증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일치는 당신으로 시작해서 당신으로 귀결되는 교회의 일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희에게 평화와 일치를 권고하셨을 때는 언제나 당신은 그것을 보존하는 유일한 끈이 당신 자신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의 우두머리이고 신앙의 기둥들이라고 뽑내는 자들과 평화롭기를 바랐다면, 저는 당신의 진리를 부인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타협에 무릎 꿇는 일보다 더 참기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쁨 부음 받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 : 35)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⁴⁰⁾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교회일치에 대한 칼뱅의 대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의 일치는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 안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교회일치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였고,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해 로마 교회를 떠났다고 밝혔다.⁴¹⁾ 칼뱅은 요한복음 10 : 9 주석에서 “교황주의자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제기하는 주된 비난이 우리 교리가 교회의 평안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 그러나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보다는 몇몇이라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 사악한 자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⁴²⁾ 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의 일치는 의미가 없다고 믿었다. 그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도 경건하게 공경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최상의 관심사로 여기는 그런 교

40.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49.

41. *Institutes*, IV, 2, 6.

42. *Commentary John 10 : 19*.

회로 삼자.”⁴³⁾고 제안한다. 칼뱅은 “제가 요구한 유일한 것은 모든 논쟁이 당신의 말씀에 의해 판결되어야 한다는 것”⁴⁴⁾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칼뱅이 추구했던 일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일치였다.

칼뱅은 자신의 시대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보편적 신앙과 교제로부터 이탈한 측은 바로 교황주의자들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분리는 로마의 탈선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뱅은 사돌레토에게 보내는 그의 답변을 그리스도교적 일치를 위한 기도로 끝내고 있다.

사돌레토여, 주님이 당신과 당신의 당파로 하여금 교회일치의 유일한 참된 끈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셨고, 우리를 현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해 내어 자신의 몸의 교제 속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영으로 결합될 것입니다.⁴⁵⁾

3. 논쟁의 의미

사돌레토의 전기 작가 더글러스는 사돌레토의 편지와 칼뱅의 답변에 대해 “사돌레토의 편지는 …… 피로한 기색을 보이며 30살밖에 되지 않은 적수의 답변에 비해 확실히 가치가 떨어진다. 추기경의 편지는 그 논리가 느슨하고 일상적인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는 데 반해, 칼뱅의 답변은 팽팽하고 진취적”⁴⁶⁾이라고 평가하였다. 웅변술의 입장에

43.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41.

44.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50.

45.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256.

46. Richard M. Douglas, *Jacopo Sadoletto*, 147.

서 볼 때, 사돌레토의 편지는 그의 명성에 훨씬 못 미쳤다. 사돌레토는 이미 두 차례 비슷한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1537년 비텐베르크에 있던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에게, 또 한 번은 1538년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던 장 슈투름(Jean Sturm)에게였다. 멜란히톤과 슈투름에게 보낸 이전의 편지들은 우아한 글이었지만, 이 세 번째 편지는 문체의 세련미가 부족하였다.⁴⁷⁾ 반대로 칼뱅의 답변은 16세기의 가장 우아한 문학작품들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티모디 조지(Timothy George)에 따르면, “칼뱅의 답변은 문학적 역작으로 아마도 16세기에 씌어진 개혁신앙에 대한 최고의 변호였다.”⁴⁸⁾ 칼뱅은 자신의 저술들에서 항상 평이한 문체를 추구했지만, 사돌레토의 편지에 대한 답변에서만은 예외적으로 기독교 인문주의 운동의 수사학적 기교를 사용하였다.⁴⁹⁾

그러면 사돌레토와 칼뱅의 서신왕래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제네바 사람들을 다시 로마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던 사돌레토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그 편지가 라틴어로 씌어졌기 때문에 널리 유포될 수 없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반면에 프로테스탄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설립하려 한 자신의 노력을 변증했던 칼뱅의 답변은 제네바의 지지를 얻어 내었고, 제네바에서 자신의 위상을 다시금 고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칼뱅의 답변은 그가 제네바로 귀환하는 데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해 준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칼뱅의 답변이 그가 귀환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베른과의 협상에 실패한 반(反)칼뱅파가 권력을 잃게 된 1539~1540년의

47. 더글러스는 자신의 책에서 사돌레토가 멜란히톤에게 보낸 편지를 117-124쪽에서, 슈투름에게 보낸 편지를 131-135쪽에서, 제네바에 보낸 편지를 143-150쪽에서 각각 분석하고 있다.

48. Timothy George, *Theology of the Reformers*(Nashville : Broadman Press, 1988), 182.

49. James R. Payton, Jr., “History as Rhetorical Weapon : Christian Humanism in Calvin’s Reply to Sadoletto, 1539,” 109.

정치적인 상황이 칼뱅을 제네바로 돌아오게 한 주된 이유였기 때문이다.⁵⁰⁾ 우리는 칼뱅이 귀환하는 조건으로 베른의 사전 동의를 요구했다는 사실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그의 귀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칼뱅의 축출과 귀환은 모두 제네바의 정치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칼뱅이 사들레토와의 논쟁에서 판정승을 거두었다는 세간의 평가가 칼뱅의 제네바 귀환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이라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제네바 의회는 1540년 1월 30일 사들레토의 편지와 칼뱅의 답변을 라틴어와 프랑스로 출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프랑스로 출판은 평범한 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⁵¹⁾ 벨란히톤은 사들레토에 대한 답변으로 칼뱅이 비텐베르크에서까지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고, 루터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했다. 루터는 1539년 10월 부처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뱅의 답변을 “아주 특별한 즐거움으로”⁵²⁾ 읽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루터가 칼뱅의 이름을 거론한 유일한 경우였다. 사들레토의 편지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통해 칼뱅은 그 이전보다 더욱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강력한 옹호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필자는 종교개혁의 성격과 정당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들레토와 칼뱅의 논쟁을 16세기 제네바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분석하면서, 그 분석의 틀로 교회와 성서, 성령과 말씀, 사랑과 믿음, 분파와 일치라는 네 가지 항목들을 사용하였다.

필자가 이 네 항목의 분석틀을 선택한 것은 그것들이 사들레토의 편지와 칼뱅의 답변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들인 동시에 전체 종교개혁 논쟁에서도 가장 참여한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

50. Jacopo Sadoletto and John Calvin, A Reformation Debate, 25.

51. Jacopo Sadoletto and John Calvin, A Reformation Debate, 24.

52. Jacopo Sadoletto and John Calvin, A Reformation Debate, 24, 각주 37.

해 두 사람의 주장의 핵심,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측의 주장과 논리를 보다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가 선택한 이 네 항목의 분석틀이 사들레토의 편지와 칼뱅의 답변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교개혁을 둘러싼 다른 논쟁들에도 유효한 분석틀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vis, Paul D. L.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the Reformers*. Atlanta : John Knox Press, 1981.
- Backus, Irena. "Calvin and the Greek Fathers," *Continuity and Change*, eds. Robert J. Ast and Andrew C. Gow. Leiden : Brill, 2000.
- Brown, Robert McAfee. "'Tradition' as a Problem for Protestants," *Union Seminary Quarterly Review* 16 : 2 (January 1961) : 197-221.
- Calvin, John. *Calvin : Commentaries and Letters*, ed. Joseph Haroutunian.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London : SCM Press Ltd., 1954.
- _____. *Calvin : Theological Treatises*, ed. J. K. S. Reid.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London : SCM Press Ltd., 1954.
-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s. 1-12, eds.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tr. Ford L. Battles. Atlanta : John Knox Press, 1975.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ohn T. McNeill, tr. Ford L.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54.
- _____. *Letters of John Calvin*, Vol. I, ed. Jules Bonnet. New York : Burt Franklin, 1972.
- _____. *Tracts and Treatises on the Doctrine and Worship of the*

- Church*. Vols. 1-3, tr.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8.
- Douglas, Richard M. *Jacopo Sadoletto 1477-1547 : Humanist and Reformer*.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 Ganoczy, Alexandre. *The Young Calvin*. Philadelphia : The Westminster Press, 1987.
- George, Timothy. *Theology of the Reformers*. Nashville : Broadman Press, 1988.
- Kingdon, Robert. "Was the Protestant Reformation a Revolution? : The Case of Geneva," *Transition and Revolution : Problem and Issues of European Renaissance and Reformation History*. ed. Robert Kingdon. Minneapolis : Burgess Publishing Company, 1974.
- Lane, Anthony N. S. *John Calvin : Student of the Church Fathers*. Grand Rapids : Baker Books, 1999.
-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 Olin, J. C. ed. *A Reformation Debate : Sadoletto's Letter to the Genevans and Calvin's Repl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66.
- Payton, James R. Jr. "On Unity and Truth : Martin Bucer's Sermon on John 17." *Calvin Theological Journal* 27, 1 (April 1992) : 26-38.
- Steinmetz, David C. "Luther and Calvin on Church and Tradition." *Calvin's Ecclesiology : Sacraments and Deacons*. Vol. 10. ed. Gamble, Richard C. 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1999.
- Tavard, George H. *Holy Writ or Holy Church*. New York : Harper and Brothers, 1959.
- 박경수. "부처와 칼뱅 : 16세기 교회일치의 옹호자들," 「칼빈연구」 제2집.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박경수. "성만찬론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 「성만찬에 관한 소논문」과 「취리히 합의」를 중심으로," 「칼빈연구」 제3집.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